

월출산 일대 확 바뀐다...강진군·국립공원공단 '협약'

균형 있는 보존·개발 통해 생태관광 수요 대응 200억 원 투입...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 등

강진군의 서북부 대표 관광지인 월출산 일대가 새롭게 바뀐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원 군수와 송형근 국립공원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진 월출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추진되면 경치가 아름다운 금릉 경포대, 다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운동 원림, 천년고찰 무위사, 강진다원, 월남사지 등 관광 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생태탐방프로그램 활성화로 강진군의 관광 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OU는 전체의 경관을 자랑하는 월출산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강진 지역의 월출산국립공원 내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야영장 등을 조성하고 군에서는 시설 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사업은 국립공원 저지대에서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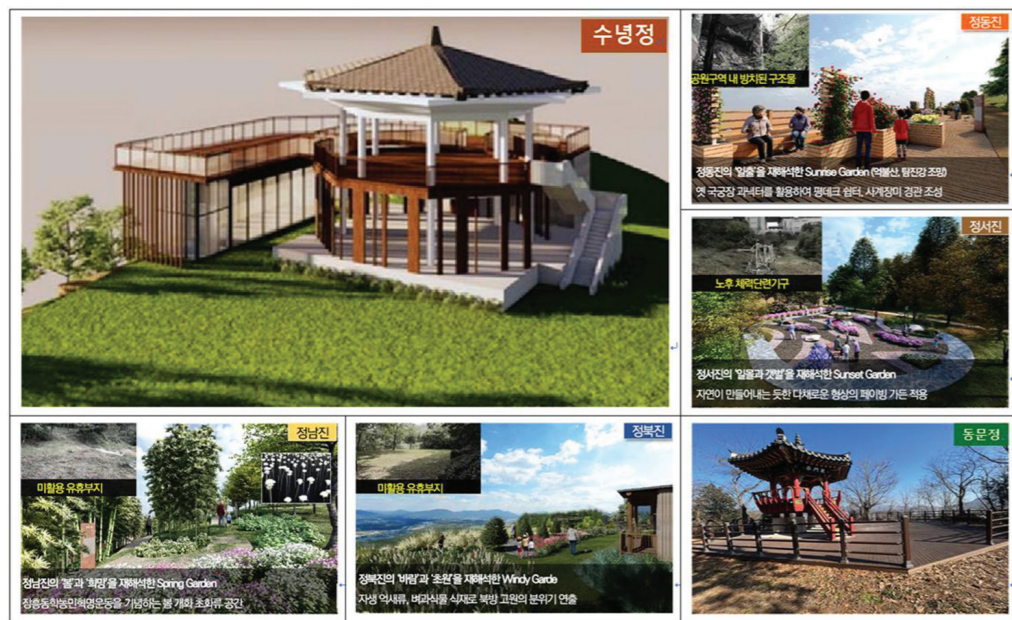
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이며, 야영장 조성은 소음과 매연 등 공해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야영시설과 공원, 편의 시설 구축이 주 내용으로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도 개설된다.

군은 이외에도 66억 원이 투입돼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백운동 원림 전시관과 30억 원이 투입되는 성전 녹차밭 주변 둘레길 정비, 포토존 설치 등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진군 월출산국립공원 내에 다양한 체류형 탐방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내용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다시마 수확철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425명 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서 과반 이상 완도군에 배치...일손 부족 해결

완도군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12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425명을 입국시켜 어가에 배치했다.

이번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과 라오스 국적으로 입국과 동시에 마약 검사, 소방 안전교육, 어업인 사전교육 등을 거쳐 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다가오는 다시마 생산 시기에 인력난을 겪는 금일읍을 중심으로 인력(300여 명)을 배치하여 어업

인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과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필리핀 등 3개국의 768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5개국의 57명을 비롯해 총 82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완도군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완도군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백여 명이다.

한편군에서는 고용주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산재보험 대신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업인 안전 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

또한 임금 지급 통장 개설과 관련해 완도읍 일수협과 완도소안수협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등록 전이라도 근로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어가의 일손 부족 등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증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예양공원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새단장

동서남북 상징하는 사방진 테마공원 조성...“장흥읍 서부권 관광활성화 기대”

장흥군은 장흥읍 예양공원을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장흥군 탐진강, 토요시장, 예양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까지 아우르는 블루투어 사업이다.

2020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보수에서 벗어나 일차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체 운영과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축제 개최 등이 함께 이뤄진다. 모두가 참여하는 공원을 조성해 장흥읍 서부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역민과 함께 장흥읍성 둘레길 내 노후되고 파손된 동문정(배비정)을 개축하고 위험구간 안전

계단 설치 등 우선적인 준비를 마쳤다.

군은 현재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BF인증, 군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방진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군민의 추억이 깃든 수녕정(팔각정)은 존치하고, 주변에 1층 규모의 다목적 숲속공방을 신축하여 2층은 탐진강, 역불산 등 장흥읍을 전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궁장(흥덕정) 인근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1,600송이 LED국화 조형조형물과 다목적 기획전시실을 신축하고, 노후된 영희당은 관리동과 화장실 2동을 새롭게 단장한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 매일시장 야간개장 “금요일엔 야시장으로 오세요”

내일부터 7월까지 총 5회 야간개장 행사



해남군 해남읍의 매일시장이 야시장 행사를 개최한다.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은 오는 5월 19일과 6월 9일, 23일, 7월 7일, 21일에 걸쳐 총 5회 열린다.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야시장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매일시장 털어볼까'를 주제로 시장을 야간 개장한다. 시장 내 먹거리 판매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운영,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매일시장 대표 먹거리인 통닭, 튀김, 분식, 국화빵 뿐만 아니라 각종 전, 낙지·바지락 회무침 등 다채롭게 판매될 예정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